



KIA 2년 연속 황금장갑 '빈 손'

SK 김광현 'MVP'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시상

KIA 타이거즈가 2년 연속 골든글러브와의 인연을 맺지 못했다.

KIA는 11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후보로 올랐던 윤석민(투수), 이용규·김원섭(이상 외야수)이 수상대에 서지 못하면서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이날 '방어율왕' 윤석민은 페어플레이상의 영광을 누렸지만 2008 MVP 김광현의 기세에 밀려 투수부문 골든글러브를 양보했다. 1루수 부문은 '홈런왕' 김태균(한화)이 2루수는 롯데 '캡틴' 조성환에게 돌아갔다.

이대호(롯데)와 김동주(두산)의 치열한 경쟁으로 눈길을 끌었던 3루수 자리는 김동주의 2년째로 마무리됐고, 유격수 부문의 영예는 롯데 박기혁의 차지였다.

'타격 3관왕' 김현수(두산)와 롯데 돌풍 가르시아(롯데)가 미리 예약을 해두었던 외야수 부



11일 오후 코엑스에서 열린 프로야구 2008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각 부문 수상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뒷줄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롯데 박기혁(유격수), 두산 홍성흔(지명타자), 롯데 가르시아를 대신해 김무관 코치(외야수), 두산 이종욱(외야수), 롯데 강민호(포수), 두산 김현수(외야수), 한화 김태균(1루수), SK 김광현(투수), 롯데 조성환(2루수).

문의의 남은 한 자리는 두산 이종욱의 차지였다. 골든포토상의 주인공 포수 강민호는 최고의 안방마님으로 등극했고, 올 시즌 포수에서 지명타자로 변신한 홍성흔은 양준혁의 역대 최다 수상(9회) 기록 작성을 저지했다.

화려했던 시절을 기억하는 KIA 팬들에게는 아쉬운 시상식이었다. 지난해에도 이현곤이 '타

격왕' 타이틀을 가지고도 12표 차로 두산 김동주에게 3루수 황금장갑을 내주면서 아쉬움을 곱씹어야 했던 팬들은 '황금장갑'에 목이 마른다.

1997년까지만 해도 타이거즈는 골든글러브 시상식 최고의 단골 손님이었다. 프로야구 창단 첫 해인 1982년 차영화(2루수)·김준환(외야수)이 골든글러브를 낀 이후 1997년까지 단 한 차

레도 그 명맥이 끊긴 적이 없었다. 팀이 6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던 1991년에는 환상의 배터리 선동열·장재근을 비롯한 김성한(1루수)·한대화(3루수)·이호성·이순철(이상 외야수)이 10개의 골든글러브 중 무려 6개의 골러브를 싹쓸이했다. 하지만 선동열에 이어 이종범마저 일본으로 떠난 뒤 팀의 하락세와 맞물려 1998년부터 KIA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2001년까지 아무 소득없이 돌아서야 했다.

위기의 KIA를 구한 건 이종범이었다. 1997년 팀의 마지막 골든글러브 주인공 이종범은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해(2002년) 골든글러브를 꺼면서 끊었던 계보를 다시 이었다. 해태시절 유격수로 4차례 골든글러브를 썼던 이종범은 외야수로 변신해 2002년과 200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누리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2년을 침묵해야 했던 KIA는 이용규(외야수)라는 새로운 스타 탄생으로 2005년 간신히 골든글러브 시상식에 명함을 내밀었다. '무명' 이용규는 LG에서 KIA 유니폼으로 갈아입자마자 주전을 깨자며 골든글러브의 영예까지 안았지만, 2008년 외야수 풍년 속에 KIA의 침묵을 깨는 데는 실패했다.

오늘 밤 환상의 '아이스 쇼' 펼쳐진다

(8시 15분)

“기술과 연기 모두 돋보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노력이 제대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김연아(18·군포 수리고)가 2008~2009 SBS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자신이 가진 기술과 표현이 제대로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다는 속내를 밝혔다.

김연아는 11일 오후 고양시 덕양구 고양얼음리 누리미디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자싱글에서 경쟁하게 될 6명의 선수는 모두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며 “나 역시 기술과 연기력 모두 돋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또 그런 노력에 맞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연아는 12일 오후 8시15분부터 시작하는 여자싱글 쇼트프로그램과 13일 밤 8시 5분부터 예정된 프리스케이팅에 출전해 그랑프리 파이널 여자싱글 사상 두 번째 3연패 달성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중점을 둔 점에 대해선 “지난달 그랑프리 3차 대회를 치르고 나서 컨디션

조절에 집중했다. 기술이나 안무는 바꾼 게 없다”며 “깔끔하고 안정감 있게 완벽한 연기를 펼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김연아는 아사다 마오(18·일본)와 대결구도가 펼쳐진 것에 대해 “이번 대회에는 아사다 말고도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출전한다. 특정 선수에 대해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는 그러나 “아사다와는 주니어 시절부터 경쟁해왔다. 예전에 부담을 많이 느끼기도 했지만 지금

은 경험이 쌓여서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연아는 또 “주변에서 그랑프리 파이널 3연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솔직히 훈련을 할 때는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며 “피겨는 기록경기가 아니다. 자신의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소화하는 능력이 있느냐를 따지는 경기다. 기록보다 경기에 집중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 중점을 두고 싶은 부분에 대해선 “이번 시즌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매우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실수도 있었다”며 “스핀과 스텝에서도 더 깔끔하게 연기를 마무리하고 싶다. 좀 더 몸에 익은 연기를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김연아는 ‘스타로서 생활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 “솔직히 캐나다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어서 실감을 못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국제대회는 처음이라 국내 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이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지만 이미 지난 3차 대회 때 베이징으로 원정응원을 많이 오셔서 별로 긴장하지 않고 경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08-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파이널에 참가하는 ‘피겨 여왕’ 김연아가 11일 오후 고양시 고양 얼음리 누리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공식 훈련에서 가볍게 몸을 풀고 있다.”

김연아 ‘한국을 빛낸 선수’

2년 연속 1위 올라...한국갤럽 설문

박태환을 지목한 셈이다. 박지현(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23.9%로 3위, 장미란(25·고양시청)은 21.8%로 4위에 올랐고 11.5%를 기록한 이은영(32·요미우리 자이언츠)이 5위다.

최민호(28·한국마사회)와 이용대(20·삼성전기) 등 올림픽 영웅들이 2.5%와 2.3%로 6.7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갤럽은 “2008~2009 SBS 국제빙상경기연맹

(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3연패에 도전하는 김연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또 “계층별로 보면 김연아와 박태환은 모두 남자보다 여자, 특히 40대 여자의 큰 지지를 얻었다. 박지현은 여자(14.9%)보다 남자(33.1%)가 두 배 이상 많았다”라고 덧붙였다.

지애의 날 “모두 내것”

①대상 ②최저타수상 ③다승왕 ④상금왕 ⑤KB스타투어 상금왕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가 올해도 한국여자프로골프 시상식을 독무대로 만들었다.

신지애는 11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리츠칼튼 서울호텔에서 열린 ‘하이마트 2008 한국여자프로골프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다승왕, 최저타수상, 상금왕, 그리고 KB스타투어 상금왕 등 5개의 트로피를 안았다.

대상과 다승왕, 상금왕, 최저타수상은 2006년과 작년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이다.

신지애에게 이날 시상식은 특별했다. “상금왕 3연패를 달성하고 미국으로 진출하겠다”고 공언했던 신지애는 약속대로 국내 최고 선수 자리를 3년 동안 지켰고 화려하게

국내 고별무대를 장식했다. 마침 리츠칼튼 서울호텔은 5년 전인 2003년 12월11일 중화생이던 신지애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가 주는 아마추어 장학금을 받았던 곳이다.

2년 전 신지애에 뒤이었던 신인왕은 최혜용(18·LG)에게 돌아갔다. 최혜용은 아시안 게임 단체전 금메달리스트를 합작했던 국가대표 동료 유소연(18·하이마트)과 치열한 접전 끝에 평생에 한번 뿐인 영예를 안았다.

신지애에 이어 다승 2위, 상금 2위에 오른 서희경(22·하이마트)은 팬과 기자단이 뽑은

최고 인기선수로 선정돼 인기상을 받았고 박지현(20·테일러메이드)은 베스트 드레서상을 수상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올해 2승을 올린 이선화(22·CJ)와 일본여자프로골프투어에서 상금랭킹 2위를 차지한 이지희(29·진로)는 국외 부문 대상을 받았다.

한편 서희경, 최혜용, 유소연, 홍란(22·번심웨어), 김하늘(20·코오롱) 등 5명은 윈터걸스의 히트곡 ‘노바디’를 음동과 함께 불러 눈길을 끌었다. 각각 시즌 1승 이상을 거둬 시즌 13승을 합작한 이들은 그동안 틈틈이 윈터걸스에게 직접 음동과 노래를 배우고 연습을 했다.

11일 오후 강남구 역삼동 리츠칼튼 서울호텔에서 열린 ‘하이마트 2008 한국여자프로골프 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신지애가 활짝 웃고 있다.

KIA 차일목 연봉 100% 인상 찬호 필라델피아와 계약할듯

올 시즌 KIA 타이거즈의 안방을 책임졌던 포수 차일목이 11일 100% 인상된 연봉 6천만 원에 재계약했다. 부상으로 안방자리를 내줬던 김상훈은 올해와 같은 1억 5천만 원에 재계약을 마무리 했다.

군 제대 후 복귀한 투수 유동훈은 올해 6천만 원에서 50% 인상된 9천만 원에 재계약했고, 손영민은 2천8백만 원에서 4천3백만 원, 양현종은 2천4백만 원에서 3천5백만 원, 광정철은 2천만 원에서 2천5백만 원으로 인상된 금액에 각각 도장을 찍었다. 포수 이상우도 2천만 원에서 2천5백만 원으로 연봉이 인상됐다. 이외 문현정과 오준형은 각각 2천6백만 원과 2천5백만 원으로 동결됐고, 전태현과 조동현도 2천만 원으로 동결된 금액에 도장을 찍었다. KIA는 이날 11명과 추가 연봉 계약을 맺어 53명중 31명과 재계약을 마쳤다.

미국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 나온 박찬호(35)가 올해 월드시리즈 우승팀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미국 포털사이트 야후 스포츠가 11일 전했다.

야후스포츠에 따르면 필라델피아는 박찬호의 바람대로 그를 선발투수로 기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필라델피아 홈페이지도 야후스포츠의 보도를 인용, 박찬호의 계약 임박 소식을 전하면서 1년 계약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올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5차례 선발 등판을 포함해 54경기에서 4승4패, 평균자책점 3.40을 남긴 박찬호는 선발로 될 수 있는 팀을 알아보고자 친정 다저스를 떠나기도 했고 윈터미팅에서 새 동지를 물색했다. 박찬호가 필라델피아 선발진에 가세한다면 5선발이 유력하다고 야후스포츠는 덧붙였다.